

“신발 끈 다시 묶고 탄핵 절차 마무리 될 때까지 달릴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6분경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날 전주에서 윤석열 탄핵안 가결을 축하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도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한 고비를 넘었다. 신발 끈을 다시 묶고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달릴 것”이라며 향후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집회 주최측은 향후 집회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전주객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예정된 지난 14일 오후 3시, 전주시 전주객사 풍패지관 앞에서는 지난 4일부터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14일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규모는 지금까지 열린 집회보다 더 많았다. 약 1만명(경찰 추산)의 시민들이 모두 사회자가 외치는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가의 수적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구호를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탄핵소추안이 꼭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떠들썩했던 집회는 오후 4시께 탄핵소추안 표결 방송이 송출되자마자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시민들은 모두 대형 스크린에 눈을 떼지 못하고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개표 직전까지도 시민들은 가결을 위한 목소리를 더 높이며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개표 결과가 방송을 타고 전해진 그 순간, 집회 현장은 감격에 찬 시민들의 함성으로 순간 가득 매워졌다.

자리에 앉아있던 시민들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뼉맞을 하늘로 쳐들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집회는 가결 이후의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 후속 공연까지 진행되며 시민들은 계속해서 자리에 머물렀다.

촛불집회 선정 곡이 된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트(로제·부르노 마스)’ 등 신나는 노래에 맞춰 무대 위에 오른 댄스팀의 춤과 함께 시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까지 오면서 시민들은 가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호성과 함께 집회 분위기를 즐겼다.



우범기 전주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유희태 원주군수 등 도내 시장·군수들이 이 자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제공>

전주객사 풍패지관 앞에서尹 퇴진 촉구 집회 열려 참가자들 “尹 탄핵” 등 구호 한 목소리로 외쳐尹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자리서 일어나 기쁨의 함성



도내 시장·군수들도 참여 “국민들의 뜻에 함께할 것”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탄핵 가결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개표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다며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입모아 말했다.

이어 한 시민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아직 절차가 다 끝나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집회가 있으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도내 시장·군수들도 함께 했다.

집회에 참여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탄핵안 가결에 “탄핵을 염원하는 촛불 행사장에 많은 청소년과 시민이 운집한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더 열심히 전주발전을 위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국회도 국민의 목소리와 양심을 외면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전 공무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무거운 목소리를 촛불

행사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맡은 책임을 소홀함이 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태 원주군수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행동하는 양심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있다”며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원주민의 뜻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주관하는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됐지만, 아직 모든 단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탄핵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때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